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또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었을 때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의 그 어디에 참뜻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이러는데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샐 틈이 없는 그 도리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戒)가 문제가 아니라 일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을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 작은 물건밖엔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둘이 아닐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뭣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렇게 해 놨죠.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한테 바로 법설을 하시는 데, 금강경 법설을 하시는 데 해당됩니다.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가 말하는 겁니다. 저 불 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핵입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육근으로 인해서 육진 육식, 이것이 총 죄다 한데 합해서 '십팔, 심, 소연, 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요 말 조 말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서, 팔만대장경이 옴치고 옴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나입니다. 저 '불' 자 하나예요. '불교' 이러죠.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심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니까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불교니 이걸 따지고 이렇게 소견에 의해서 요만한 그릇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든지, 내가 어느 소굴에든지 들어가 봐야 바로 호랑일 잡을 수가 있고, 떡 그릇에도 엎드러져 보고 똥 그릇에도 엎드러져 봐야 '아하,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은 대(對)가 없는 게 부처님이로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아마.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느 개별적인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넓고 넓은 광대무변한 마음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찰나에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지금 찰나에 삽니다.

그전에도 항상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한 철이라 하면, 봄이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앙당한 가지만 남죠. 그런 것이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법이 없고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몸이 떨어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둘이 아니다. 본래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물질이 아닌 이상,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마음을 내놓는 분이 있고 진짜 마음을 못 내놓고 우물쭈물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찰나에 완성할 수 있는, 따져 보면 한 철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낙엽 떨어지듯. 그런데 하물며 나무도 한 철 낙엽이 져서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울지 않고 인내로써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추워도 봄이 오길 기다리는 인내는 물러서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으로서, 고등 동물로서 조금만 추워도 그저 방황하고 온통 야단법석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당신이 그랬어! 뭐 어쨌어!" 애가 조금만 저거 해도 신경질, 자기가 신경질 나면 애한테 그냥 마구 신경질 내고 말입니다. 자기가 신경질 나면 부인한테로 가고 부인이 신경질 나면 또 애한테로 가고, 연방 이렇게 돌아가니 그게 무슨 짝입니까? 왜 속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한번 굴려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바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거는 한 뿌리다' 이럴 때에 저 전기 가설과 같아서 한 식구라 하면 벌써 가설이 된 한방 식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켜면, 식구들이 불을 못 켠다 할지라도, 밝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스위치를, 즉 말하자면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없다.' 하고 믿을 때에, 바로 진정코 믿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밝아지니 식구들이 밝게 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량수와 같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무량수와 같이 죄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죄가 붙을 자리도 없고 또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붙을 자리가 없다는 그 자체를 아시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 이렇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오면 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대치해 나갈 뿐이지, 무엇이 살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죽어야 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이것을 해야만 이게 된다, 이게 업을 벗는다' 이러는데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부터라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도 붙을 자리가 없고 팔자도 운명도 다 붙을 자리가 없으니 그대로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머지않아서 아마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실 것입니다.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망상이라고 속지 마시고 거기에 놓으시라는 겁니다. 용광로와 같이 말입니다.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 쇠가 생산이 돼서 이름을 가지고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자동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용광로와 같이 아시고 거기에 놓는 작업만 하시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한다.' 하는 작업만 하실 때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이 그렇게 통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오신통은 재료라고. 여러분한테 재료지, 오신통 바로 그 자체도 벗어나야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신통 안에 매여 있다면 오신통을 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 그 자체에서도 벗어나야 그 재료로다가 오븐에 넣어서 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스런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씌워 주고 씌워 받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지금 현시대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렇게 믿고 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 고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고집도 다 버리고 현재에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몸 안에 말입니다, 수십억 마리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샛별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뚱이는 혹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은하계가 지금 저렇게 돌아가면서 별들이 총총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말입니다, 반짝거리면서. 그래서 그 마음들이 바로 샛별같이 일어나는 그 한마음으로 뭉친 걸로 볼 때 그게 가정살이라면 바로 거기에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전기를 단 겁니다. 그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는 움죽거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밝음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움죽거리는 거죠. 이 혹성은 그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움죽거리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무식한 사람입니다만 무식한 것이 따로 없습디다. 아무리 유식하고 상식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학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아는 권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서 가난해도, 부자여서 어떠한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그거는 평등한 것입니다, 이 공부는. 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해야지.

그리고 법당의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거기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이 변소에 가면 변소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혹성이라면 바로 에너지가 있고 거기 핵이 있느니만큼 여러분이 시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종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대로 그 종이 없어도 안 되고 불교에서 말하듯 시자가 없어도 아니 되죠.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죠.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내는 게 없다면, 그 마음 내는 게 없다면 목석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끊으라는 겁니다. 왜 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찰나찰나 생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완성되는데.

또 우리가 핵이 있다 하면 그 움쭉도 안 하는 심봉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맷돌이 덜덜덜덜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맷돌뿐입니까? 기계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며 마음을 낼 수 없다면 목석이니 그건 바보고 멍청이죠. 목석이죠. 육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효죠, 또. 그러니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찰나의 이 생활, 이것이 바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완성된 이 생활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뭐가 갈 게 따로 있고 뭐가 올 게 따로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으며 가고 오는 시발점과 종점이 따로 없는데.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스님네들이 차비를 얻으러 왔을 때에 '허! 어디 갈 데가 저렇게 있어서 차비를 얻으러 오노, 응?' 하고요. 어디 갈 데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는 거밖에는 없어요. 옮김도 없는 건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인내도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떼 놓을 때에 정말이지 이 두 발자국이, 한 발은 크고 한 발은 작고 이런 것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런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런 평등한 평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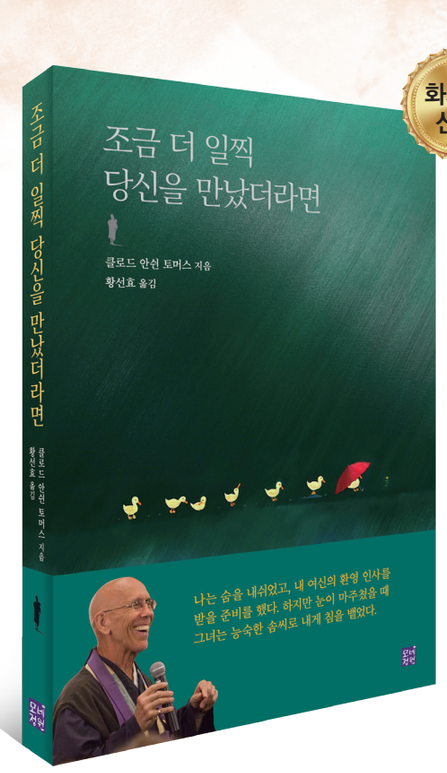
그러나 그거는 가는 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 이 찰나의 생활을 사는 거 요것만 보고 사시지 말고, 우리가 늙었으면 젊어지고 젊었으면 늙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늙었다고 해서 허무하게 생각 마시고 젊었다고 해서 기가 양양해서 그렇게 오만과 자만을 갖지 마시고, 그저 항상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대로 일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그대로 자유요, 그대로 여여한 것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기가 해 보지도 않고 만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진짜 자기 주인공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진짜 믿는다면 애고가 없어요. 왜? 그 인과로 인해서 얽히고설킨 게 그냥 싹 가차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기 주인공을 믿는다면 애고가 없어요.
인과로 인해 얽히고설킨 게
그냥 싹 가차 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2월 10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